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이미 속세의 번뇌를 잊은 듯한 여승의 모습을 그린 시구이다. 후각적 이미지. 고독한 여인의 내면 의식 환기

썰썰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늬 산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나와 여인의 첫 만남이다. 금광으로 일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으러 옥수수 행상을 하면서 금점판을 도는 여인과의 만남이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남편을 찾는 고생 속에 투정을 부렸던 어린 딸을 울면서 때리는 여인의 슬픈 한(恨)을 표현하고 있다. 감각적이고 명료한 이미지

썩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원래는 농부였을 법한 지아비가 생계 문제로 금광에 간 뒤 귀가하지 않은 지 십 년이 됐으므로 여인이 십 년 동안 과부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고, 이로 미루어 크게 고생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보편적인 민중들의 실상이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일제 강점기 가정의 파괴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어린 딸도 죽어 도라지꽃이 많이 피어 있는 돌무덤에 묻혔다. 여인이 더욱 외로운 처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죽음의 미화

산평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감정이입.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여인이 삭발하는 모습은 곧 여승이 되는 날이 되는 모습이다. 가족 공동체의 붕괴가 여승이 되게 한 것이다. 산평의 울음을 여인의 울음으로, 떨어지는 머리 오리를 여인의 눈물 방울로 대치시켜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슬픔을 초월하는 여인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감정의 객관화(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눈물방울로 대치시켜 객관적으로 묘사함)

수록 교과서 미래엔

중요도 ☆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애상적, 감각적, 서사적 구성*(단순한 시간적 흐름이 아닌 역순행적 구성), 사실주의적.
제재	한 여자의 일생
주제	여승의 비극적 삶.(가족 공동체의 상실)
해제	이 시는 한 여자의 일생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일생, 가족 구성원들이 상실되면서 일어나는 삶의 비애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그 가족은 지아비와 지어미 그리고 딸아이를 구성되어 있다. 원래 농사일을 했을 법한 지아비는 광부가 되어 집을 나가고, 아내는 남편을 찾아 금점판을 돌며 옥수수 행상을 하고, 그 고생에 못 이기어 딸은 죽어 돌무덤에 묻히고, 자신은 산 속 절간에서 삭발을 하여 여승이 되었다.

출제 point

시어 풀이

합장(合掌)	부처에게 배려할 때 두 손바닥을 마주 합침
가지취	취나물의 일종
어늬	'어느'의 방언
금덤판	금광의 일터, 금점판
파리한	몸이 몹시 여위거나 찢기가 없고 해쓷한
때리며	때리며
썩벌	재래종의 꿀벌
마당귀	마당의 한 귀퉁이
머리 오리	머리카락의 가늘고 긴 가닥

표현상 특징

- 감각적 어휘의 구사
- 시상의 압축, 절제
- 비유적 표현이 두드러짐(독특함)
- 역순행적 구성
- 회상적 어조



시상 전개

여승의 현재(제1연)

여승의 삶의 궤적(제2~4연)

제2연 : 시적 화자의 여인과의 만남

제3연 :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외로운 처지의 여인

제4연 : 한 많은 여인이 여승이 됨

출제 예상 문제

(가)

여승(女僧)은 합장(合掌)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넷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나)

평안도(平安道)의 어니 산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 밤같이 차게 울었다

(다)

섭별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라)

산(山)땡도 설게 올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인의 삶을 역순행적 구성으로 제시한다.
- ② 일제 강점기의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 ③ 시적 화자는 시적 대상을 관조적으로 바라본다.
- ④ 인물, 사건 등의 서사적 요소에 의해 시상이 전개된다.
- ⑤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비애를 형상화하였다.

2 다음은 이 시를 이야기로 재구성한 것이다. 어색한 것은?

- ① 나는 전에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는데, 여인은 칭얼대는 딸을 때리며 울었다.
- ② 여인의 남편은 돈을 벌러 먼 곳으로 떠났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 ③ 도라지꽃을 좋아한 딸은 도라지꽃이 많이 피어있는 돌무덤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 ④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 나날을 보내던 여인은 결국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 ⑤ 여승을 만난 나는 여인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쓸쓸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고 서러워졌다.

3 이 시의 연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바르게 재배열한 것은?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나) → (다) → (라) → (가)
- ③ (나) → (가) → (다) → (라)
- ④ (다) → (라) → (나) → (가)
- ⑤ (다) → (가) → (라) → (나)



4 이 시와 분위기 및 정서가 통하는 것은?

- ① 까닭 없이 마음 외로울 때는 / 노오란 민들레꽃
한 송이도 / 애처롭게 그리워지는데, (민들레꽃,
조지훈)
- ②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 우리가 저와 같아서 /
강변에 나가 샅을 씻으며 / 거기 슬픔도 퍼다 버
린다. (저문 강에 샅을 씻고, 정희성)
- ③ 진주 남강(晋州南江) 맑다 해도 / 오명 가명 / 신
새벽이나 별빛에 보는 것을, / 울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달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들같이 / 말
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추억에서, 박재
삼)
- ④ 안개는 그 읍의 명물이다. / 누구나 조금씩은 안
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 아이들은 무력무력 자라 모두들 공
장으로 간다. (안개, 기형도)
- ⑤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 누구와 함께 지난 날
의 꿈을 이야기하랴. / 양귀비 끊여다 놓고 / 주
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운다. (고향 앞에서,
오장환)

문제 해설

1. 답 : ③

이 시는 시적 화자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시적 화자의 정서는 절제되어 있으나,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는 부분을 보면 시적 화자의 감정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의 삶을 관조적으로 서술한다고 볼 수 없다. 관조(觀照)는 '대상의 본질을 주관을 떠나서 냉정히 응시(凝視)함'의 뜻이다. 이 시에서 남편이 집을 떠나고 자식까지 잃는 여인의 삶을 시적 화자의 회상을 통해(①) 서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④), 이는 일제 강점하의 수탈 속에서 가족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형상화한 것이다(②). 이런 고통을 겪는 여인의 서러움을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산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과 같은 시각, 청각의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였다(⑤).

2. 답 : ③

3연 3행은 어린 딸이 죽어서 돌무덤에 묻혔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3. 답 : ②

'옥수수 행상을 하는 여인과 나의 만남' → '여인의 딸이 죽음' → '비구니가 된 여인과의 재회'

4. 답 : ③

여인의 비극적인 삶이 형상화되어 있는 이 시는 애상적인 분위기와 서러움의 정서가 나타난다. ③은 고달픈 삶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슬픔이 형상화된 시로, 애상적인 분위기와 어머니의 서러움이 나타난다. ① 시적 화자의 외롭고 그리운 마음이 형상화되어 있다. ② 강물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내용이다. 시적 화자는 강변에서 하루 종일 샅을 씻는 동안 슬픔이 사라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시는 성찰적인 성격을 지닌다. ④ 읍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⑤ 고향을 잃은 사람의 그리움과 회한이 쓸쓸한 분위기 속에서 그려지고 있다.